



## [사람+] '소리 없는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파타 성당 축성식 앞둔 아시아 최초 청각장애인 사제 박민서 신부



박민서 신부가 "많은 도움을 주신 신자들 덕분에 새 성전 완공이 가능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청각장애가 있는 제가 사제가 될 때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제가 되어 청각장애인 성당을 짓는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힘겨움이 따랐죠. 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우리만의 성당이 생긴 것을 기뻐하는 신자들을 보면 더없이 기쁩니다.”

박민서(에파타 준본당 주임) 신부는 아시아 최초의 청각장애인 사제입니다. 그가 사제가 된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사제의 꿈을 이루려 정순오 신부(현 잠실성당 주임)의 도움으로 26세가 되던 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유학을 떠난 지 20년 만인 2007년 사제서품을 받기까지 그는 누구보다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또 하나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농아선교회가 설립된 지 62년 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에파타 성당(준본당)’이 완공된 것입니다. 오는 25일 염수정 추기경 주례의 축성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교회는 수유동 툇짱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건물을 빌려 주일마다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현재 선교회에 등록된 신자 수는 500여 명. 서울 각지에서 모이는 청각장애인 신자들은 짝짝 채워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비좁은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앞사람에 가려 수화도 잘 보이지 않고 서서 미사를 드려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박 신부는 2011년부터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 성당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150여 개 성당을 방문해 후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신자들의 교무금만으로는 엄청난 건축비를 충당하기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술한 노력 끝에 8년 만에 신자들의 목마른 영성을 축일 수 있게 됐습니다. 후원 미사를 다니는 동안 차가운 시선에 부딪히는 등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꼬깃꼬깃 접은 쌈짓돈을 건네는 할아버지, 동전을 모은 저금통을 수줍게 꺼낸 초등학교도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인 한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힘겹게 박 신부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여러 사람의 온정이 모인 새 성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박 신부는 “청각장애인에게는 무엇보다 시각적인 효과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성전은 어디서든 수화가 잘 보일 수 있게 계단식으로 지어졌습니다. 300석 규모의 성전에 가로 3m, 세로 1.8m의 대형 LED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전광판을 통해 주례 사제의 수화와 자막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박 신부의 자필(自筆)이 성당 건물 벽면에 새겨진 것도 큰 특징입니다. 평소 서예가 취미인 박 신부에게 설계자가 제안해 성사됐습니다. 그는 한 달에 걸쳐 요한복음 6장의 600자를 직접 썼습니다. 성경 말씀의 끝에는 박 신부의 호(號)인 ‘수우(守愚)’가 자리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스스로를 ‘바보’라고 한 것처럼, 추기경을 본받는 사제가 되라며 그의 서예 스승이 지어 준 것입니다. ‘지킬 수, 어리석은 우’를 뜻했습니다. 박 신부는 “많은 응원을 보낸 신자들 덕분에 성당이 완공될 수 있었다”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도움 주신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열려라’라는 뜻의 에파타처럼 우리 성당도 모든 신자에게 열려있습니다. 활짝 열린 에파타 성당으로 언제든 오세요.”

구여진 플로라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후원: 우리은행 813-018782-13-101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